

# 시진핑 시기 군사엘리트의 인적 네트워크 분석

서상민(국민대 인문사회연구소)

## I. 머리말

시진핑 집권 후 중국은 국가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中國夢)을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부가 말하는 중국의 꿈은 간단히 말한다면 ‘부국강병’(富國強兵)이 된다. 이는 경제적으로 세계 선진국 수준의 부유한 국가를 건설하고 군사안보적으로 강한 국가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中國夢”은 곧 “強軍夢”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의 強軍夢은 주변국에게 중국군에 대한 관심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군사강대국화 중인 중국이 향후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국 정책결정자들 역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와 관심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민해방군을 이끌고 있는 중국의 군사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있다. 지난 2016년 초 시진핑 주석은 대대적인 군개혁을 단행하였다. 군개혁과 함께 군인사에 대한 조정도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엘리트의 인적구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전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強軍夢을 실현할 엘리트로 바꾸고 있는 것이다.

대대적인 군개혁과 인사조정에 앞서 시진핑 주석은 당정군의 '반부패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군 관련 반부패 운동은 '당의 군 통제 강화'라는 슬로건 하에서 어느 영역보다 깊고 넓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중국군에 대한 반부패운동은 시진핑의 군인사 조정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으나, 여기에서 필자가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그동안 형성되어 있었던 군내의 부패와 관련 인적 네트워크이다. 부패 관련 네트워크를 파악한다는 것은 현재 중국군을 이끌고 있는 중국 군사엘리트가 과연 어떤 인적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혀내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현재 중국의 군사엘리트의 사회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2012년 말 당선되었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 정위원 205명과 그 중 군 관련 중앙위원 41인에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중국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고위엘리트 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연결망으로써 당-군 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역 상장(上將) 40명의 상호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중국 최고 계급인 상장 간 네트워크는 현재 중국 군사엘리트 구성의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시진핑 집권 후 임명된 상장들이 전체 40명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시진핑의 強軍夢을 실현할 인사들의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 중국 군사엘리트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연결망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6가지 공식적, 시공식적 지표를 활용했는데, 공식적 지표로는 당경력, 활동지역, 활동군부대 등 3가지, 비공식 지표로는 출신지, 대학, 당교경력 등 3가지를 활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현 중국군 군사엘리트 네트워크 구조를 보면 공식적 네트워크가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지표 중에서 과거 같이 활동했던 특정군구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 현재 시진핑 시기 군사엘리트 사회연결망의 형성의 핵심요인이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출신지역이나, 출

신대학 등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워크보다 난징군구(南京軍區) 근무경력을 가진 군사엘리트의 연결망이 중국의 현 上將그룹의 네트워크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난징군구 출신 인사들이 중국인민해방군 주요 직책에 포진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중국 군사엘리트 분석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 1. 중국 당군관계와 군사엘리트 분석의 필요성

중국 정치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엘리트 집단의 특성에서 비롯한 정책결정과정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또는 정치적 사건으로 표출되는 엘리트 내부의 갈등에 관한 것들로 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정치에 있어서 정치엘리트간의 정치적 갈등은 노선투쟁이나 정책대립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즉, 권력투쟁의 명분으로 노선이나 정책대립이 심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노선과 정책대립이 권력투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자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權力持續의 正當性'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한다. 그 동안 중국정치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派閥' 중심연구였다. 중국정치에서 파벌에 대한 연구는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엘리트간 갈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권력정치를 분석하는 '전체주의 모델'이 갖는 일원적 권력관계의 정체성과 비역동성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여 '다원적 권력관계'를 상정하고 권력 세력간 유동적 갈등 및 협력관계의 존재를 부각시키면서 중국의 현실정치를 이해하는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엘리트 연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는데, '간부 4화'를 통해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들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된 것이다. 새롭게 떠오른 연구대상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였다. 그렇지만 파벌을 통한 엘리트 연구가 약화되거나 '테크노크라트' 연구에 의해 대체된 것은 결코 아니다.

중국정치에서 파벌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타협과 협력이라는 '파벌정치'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엘리트 그룹의 성격으로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구 혁명 간부'와 구별되는 정책지향성과 정책목표의 차이 그리고 리더십의 차이를 부각시키면서 새로운 엘리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정치를 전망하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인권력 모델'이나 '파벌정치 모델'로 중국정치를 보는 것과 같이 중국 권력정치를 규정하거나 특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술관료 모델'로 중국정치엘리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술관료가 담고 서 있는 보다 근원적인 권력정치의 분석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정치엘리트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는 보(Bo 2007)의 연구가 있다. 보는 '권력의 분할'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력 균형화'(power balancing)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면 타당한 듯 보이지만 정치권력이 과연 분할가능한 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치에서 권력을 균형화 하는 주체는 과연 누구(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면 '승자독식'이라는 권력정치 근본적 성격을 부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본고의 연구대상은 중국군을 지휘하는 군사엘리트들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국군은 중국공산당의 군대이며 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이다. 따라서 당국가체제 하의 중국국은 군사와 관련된 모든 결정은 모든 정책이나 결정이 그러하듯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인민해방군내무조령」(中國人民解放軍內務條令) 제1장 총칙 제3조에 따르면 "중국인민해방군은 중국공산당이 창설하고 지도하며, 중국공산당의 정치임무를 집행하는 무장집단

“이라고 되어 있다(中國軍網 2010. 6.15). 다시 말해, 중국군의 사명은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옹호하고 굳건히 지키는 무장력이며,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인 중국의 국가발전과 안전을 보위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 한편 중국의 최고 군사지도기구는 “중앙군사위원회”(中央軍事委員會)은 1982년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서 국가기구로 정식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지도한다”(中華人民共和國中央軍事委員會領導全國武裝力量)라고 헌법에 명기되어 있는데(人民網 2004.03.16.), 이는 군을 국가조직 내에 편입시켜 법적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전시에 무장역량을 동원하는데 있어 국가의 권위에 따라 수행한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상의 국가기구와 중국공산당의 당기구와 동일한 기구인 것은 당의 의한 국가이 통제 그리고 당에 의한 군의 통제가 당국가체제 하에서 제도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한다(Shambaugh 2002).

중국군의 특징 중 하나는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중국공산당의 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국군의 통수권을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각급 부대의 경우 군과 당이 공동지휘하는 이른바 ‘이중지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군사업무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부대의 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령원(司令員)이 있고 동시에 당업무 부문에서는 정치위원(政治委員)이 있어 이 두 지휘관이 공동으로 부대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당이 군을 지휘한다’라는 원칙 하에서 작동되는 중국군이기 때문에 군과 당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사령원과 정치위원이 같이 부대를 지휘하도록 하는 이중지휘체계가 성립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위 군사엘리트는 무엇보다 사상적 무장을 요구받는다. 중국공산당이 통치의 유지를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힘으로써의 인민해방군을 지도하는 엘리트이기 때문이다. 이를 “혁명화”라고 하는데, 당의 노선과 의지 그리고 당중앙, 중앙군사위에 절대 복종을 의미한다(李繼耐 2009; 由冀 2012). 따라서 군사엘리트에 승진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충성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중국 군사엘리트가 중국정치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군사엘리트는 신중국 성립 이후 중국정치에 있어 상당한 중요한 영향을 행사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혁과정에서 그리고 문혁종결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체제를 유지하고 전환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엘리트 간 갈등이 고조되어 있을 때 체제를 유지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Latham 1991).<sup>1)</sup> 과거 1969년 중국공산당 제9차대회에서 중앙정치국 위원 중 11명이 군사엘리트였고, 중앙위원회 위원의 경우 279명의 정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3명(44.1%)이 군사엘리트였다.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성급 고급간부 158명 중 96명이 군사엘리트였다. 중앙위원 74명, 그리고 성급 고급간부가 58명이 린뱌오 파벌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李健一 1988; 楊碧川 1999). 그리고 문혁 종결 후 정치엘리트 중 군사엘리트의 비중이 일시적으로 퇴조했다가 1977년과 1982년 당대회에서는 인민해방군 출신 정치국원의 비중이 다시 56.5%와 44.0%로 높아졌는데 이는 문혁피해자들의 복권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14차 당대회 경우 장쩌민의 군 후견역할을 한 류화칭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발탁되었고 제15차 당대회 이후에는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국방부장이 정치국위원으로 진입한 이외 군사엘리트가 중앙정치국에 진입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군사엘리트는 적어도 제15차 당대회 이전까지 많고

1) 예를 들면 대약진운동이 실패하고 류샤오치가 국가주석이 맡게 되자 전통적인 군사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린뱌오(林彪)를 중심으로 군세력이 좌파와 함께 문화대혁명을 발동하고, 문화혁명 과정에서 국가기구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를 대체해 국가기구를 장악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67년부터 당정군을 군대가 직접 관리하기 시작하여 ‘삼지양군’(三支兩軍)이라 하여 군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적음은 있으나 중국 정치엘리트 구성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상황에서 당-국가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개혁개방 이후 전통적인 당군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80년대 이후 대부분의 중국 군사엘리트에 대한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파벌정치들 내에서 분석되어 왔거나, 개혁개방 이후에는 군사전문화 모델을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Joffe 1996). 파벌정치 모델을 통해 군사엘리트 연구는 개인의 정치적 연줄망과 군내부의 인맥을 중심으로 개인의 정치적 연결망이 개인의 승진을 결정한다는 연구이다(Whitson & Huang 1973; Parish 1973; Nelson 1981; Chang 1981; Yu 1990; Shambaugh 1991; Mills 1993; 김정계 2006). 특히 가장 선구적인 연구인 화이트슨(Whitson)과 황(Huang)의 『*The Chinese High Command: A History of Communist Military Politics, 1927-1971*』(1973)은 신중국 성립 이전 형성된 5대 야전군별로 파벌형성을 밝힌 연구로 유명하다. 그들은 같은 부대에서 공동생활하면서 생긴 개인적 친밀관계가 군대 내에서 후원관계를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야전군 파벌모델에 의한 연구는 이후 중국 군사엘리트 연구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 왔다. 대표적으로 위위린(Yu Yulin 1990)의 연구는 1980년대 덩샤오핑이 제2야전군을 중심으로 하여 군을 통제했다는 연구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정치엘리트가 당군의 엘리트 명확한 구분 없이 당과 군 엘리트가 “공생”(symbiosis) 관계로 해석하거나, 당국가체제 하에서 군사엘리트가 당과 군에 속해 있는 이른바 “이중엘리트”(Dual Elite)로 파악되기도 한다(Perlmutter & Leogrande 1982). 이러한 중국 군사엘리트 분석법은 중국정치엘리트 분석법이 갖는 한계를 공유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파벌정치 모델을 통한 분석이 갖는 한계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파벌 구분은 가능하지만, 이들 파벌이 갖는 정치적 성향과 정책적 차이를 밝혀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들 파벌이 변화과정을 추적하기 힘들다. 파벌이 불변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개인의 네트워크가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파벌이 추구하는 목표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파벌정치로 중국의 군사엘리트를 분석할 경우 고정된 정치적 세력이나 집단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16차 당대회 이후 즉 후진타오 시기 이후 당군관계는 정치발전과 군사현대화과정에 따라서 이른바 “문민통제”(civilian control)이라고 하는 당에 의한 통제가 제도화되면서 기존의 야전군별 파벌모델은 더 이상 분석의 설명력을 획득하기 힘들게 되었다(김태호 2003). 따라서 파벌정치모델 분석법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군사엘리트 연구에 대한 새로운 분석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사회연결망분석을 통한 중국 군사엘리트 분석

당에 의한 군의 통제 원칙 하의 중국 군사엘리트라고 할지라도 정치엘리트를 곧장 동일화할 수 없다. 군사엘리트는 민간 엘리트와 달리 ‘군’이라고 하는 특수한 조직을 통해 성장하는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중국정치엘리트와 다른 성장배경과 조직적 연계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특히 “파벌정치 분석틀”을 통한 후진타오 시기 중국군사엘리트에 대한 분석은 군사엘리트의 파벌로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동북군”, 귀바이슝(郭伯雄)의 “서북군” 등이나, ‘太子黨’, ‘祕書幫’과 같은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李平 2007; Li )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가 자의적으로 획정한 경계를 고정화하고 이러한 범위 내에서 파벌 구성원인 정치엘리트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서상민 2015). 단일 변수에 의한 특정 파벌 구분으로 인해 중국 군사엘리트에게 어떤 정치적 성향과 태도의 변화, 더 나아가 자기 정체

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 수 있다. 다른 한편 파벌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관계맺음이 다양하고 복잡화되면서 기존에 규정하고 있던 파벌의 성격의 정체성은 불분명해지고 파벌 구성원의 포괄범위나 경계가 모호해진다. 기존 파벌연구는 변화하고 있는 파벌의 특성과 범위, 그리고 파벌의 경계 변화를 시의적절하게 포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변화의 원인과 변화를 추적해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사회연결망 분석이라는 방법으로 현재 중국의 군사엘리트의 인적 연결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을 통한 특정 국가의 정치과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정치행위자 간 맺고 있는 인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정치과정에서 네트워크가 갖는 함의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Knote 1990). 행위자 간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는 인적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의 어떤 정치엘리트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파악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활용된다. 즉 중국의 군사엘리트간 관계를 통해 상호간 관계의 집중성과 엘리트간 영향력의 정도 그리고 엘리트간 상관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 그리고 각 정치행위자들은 구성된 연결망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서상민 2014).

또한 각 군사엘리트가 공유하고 있는 속성에 대한 단순빈도 뿐만 아니라 각 속성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특성을 거리(distance)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각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상에서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엘리트 간 권력관계와 영향력의 중심성(centrality)과 상관성, 역할을 파악하려는 할 수 있다(김옥일 2008; 이우권 2007). 다시 말하면 어떤 특성과 속성을 지닌 엘리트가 누구와 인적으로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써 네트워크의 구성원 간의 “유유상종”(類類相從)을 규명해 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 상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끼는 비슷한 정치적 행위를 하거나 비슷한 목표를 가질 확률 또한 많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는 가까이 있으면 비슷해진다는 “근묵자흑”(近墨者黑) 또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연결망 분석방법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 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가정 중 하나는 “경험적 권력의 지표로서 많은 사람과 연계를 맺고 있는 행위자가 그렇지 못한 행위자보다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Hanneman 2001). 즉 많은 행위자와 연결(link)되어 있는 정치엘리트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경로’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링크가 적은 정치엘리트에 비해 비교적 덜 의존적이며, 더 많은 자원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서상민 2014). 따라서 일반적 의미에서의 영향력의 정도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특정 제도 하에서 ‘실체적’으로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엘리트가 전체 연결망 내에서의 영향력 크기는 크기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의 연결망 내에서의 영향력을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본 연구는 시진핑 시기의 군엘리트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권력엘리트들은 자신의 정책과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하여 지지자간 강한 ‘결속력’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치적 위기 상황에 당면한 지도자일수록 자신이 가지 정치적 자원인 자신의 세력(엘리트)에 대한 승진과 핵심 직위 배치 등의 관리를 통하여 그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결속력을 증대하려고 노력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을 통해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사엘리트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현재 중국의 최고위 군사엘리트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Ⅲ. 시진핑의 군 인사 특징과 군사엘리트 인적 네트워크

#### 1. 시진핑 군개혁의 특징과 의의

2016년 1월 시진핑에 의한 군개혁 이전 군지휘계통은 중앙군사위원회 밑에는 군사실무를 총괄하는 4총부(四總部)가 설치되어 있는데, 중앙군사위의 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기구이다. 4총부는 총참모부(總參謀部), 총정치부(總政治部), 총후군부(總後勤部), 총장비부(總裝備部)로 구성되며, 전군의 군사, 정치, 병참보급, 장비 영역을 총괄하고 관장하고 지도한다. 4총부의 임무라고 한다면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전과 전략, 방침과 정책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王姝 等 2013).

이와 같은 중국군의 개편방향은 이미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심화개혁을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中共中央關於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問題的決定)에서 제시된 바 있던 국방과 군대개혁과 근거한 것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중국 국방백서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군사전략』(中國的軍事戰略)에서는 개혁방향을 보다 구체화되었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전략』에서는 사이버 및 우주 공간을 중시하고 해양 권익의 수호를 위해 그에 상응하는 전력을 증강시키고 특히 중국이 해양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현재 해군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군 개혁작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공산당은 향후 중국군의 전략적 임무를 공고한 국방과 강대한 군대를 건설하여 중국군을 현대화 하는 것으로 삼고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중국의 평화발전과 안보보장의 핵심사안이라고 역시 지적하고 있다(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新聞辦公室 2015.5.26).

또한 2020년을 목표로 육군을 기동작전, 입체공격방어의 전략요구에 따라 지역방어형에서 전 지역 기동형으로 전환하고, 소형화, 다기능화, 모듈화 발전을 가속화해 다른 지역 및 다른 임무의 수요에 적응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해군은 근해방어형에서 근해방어 및 원해 호위형으로 결합된 형태로의 전환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다기능, 고효율의 해상작전 능력 체계를 갖추어 전략적 위협 및 반격 그리고 해상기동작전과 해상연합작전, 종합방어작전 및 종합보장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공군의 경우 항공우주개발을 일체화하고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전략요구에 따라 국토방위형에서 공격과 방어를 겸비한 형태로 전환하고 정보화 작전요구에 적당한 우주항공방어능력을 건설하는 한편 전략예방경보, 공중타격, 공중낙하작전, 전략송달 및 종합보장능력 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16).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의 개편은 지휘체계를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통합작적 지휘체계로 전환하고 ‘7대 군구’가 담당해 오던 지역방어체계에서 ‘5대 전구’ 하에 이루어지는 신속 기동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기존에 군구체제에서 분리되어 있던 육군·해군·공군 등의 지휘체계가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를 받는 전구사령부로 일원화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체화된 연합작전”(Intergrated Joint Operations) 능력의 강화 즉 5대 전구의 군사작전을 중앙군사위원회가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지휘단계를 축소해 일사불란한 지휘계통을 구축함으로써 중국군의 전투력을 제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肖天亮 2016).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7대군구체제는 육군의 지위가 다른 군종에 비해 우월했는데 반해 이번 개편을 통해 5개의 군종의 지위가 비교적 동등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중부전구의 경우에는 수도의 방공망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공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남부전구의 경우 남사군도 분쟁과 관련 해군의 역할이 다른 군종에 비해 중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각 군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활한 지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군구체제의 개편과 함께

군종이 세분화되었다. 특히 ‘로켓군’[火箭軍](Rocket Force)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전략지원부대를 별도로 창설하여 전략핵잠수함 및 전략 폭격기 부대, 우주방어부대 등을 통합하였다. 미래전에 대비한 부대 창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육군지휘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육군사령부를 창설하여 통합적인 육군지휘를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이번 개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군개혁은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의 “재균형”(Rebalance) 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군사동맹관계 강화에 대응하여 강대국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중국의 국가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 시진핑 자신이 국정목표로 제시했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즉 “중국꿈”의 실현 그리고 “두 개의 백년”을 위한 중국 내부의 역량을 응집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 둘째, 시진핑의 통치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4개 전면”(四個全面) 중 전면 개혁심화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의 ‘체제와 편제’를 개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각 영역의 개혁의 기준으로 삼고자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張五岳 2015). 셋째, 이른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槍桿子裡面出政權, Political power grows out of the barrel of a gun)라는 말과 같이 시진핑은 군개혁을 통한 군권장악 그리고 이를 통한 정권안정을 확보하려고 한 측면이 있다. 즉 최고위 군사엘리트의 인사와 직무조정을 통해 중국군 내 자신의 세력을 구축함으로써 불안한 통치기반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는 “반부패운동”과 군개혁의 병행은 그 정치적 효과가 증대되었고 할 수 있다(Song 2016; Nathan & Chueng 2016). 과거 군 내부의 강력한 파벌을 형성하고 있던 귀보슝(郭伯雄)의 “서부군”과 쉬차이허우(徐才厚)의 “동북군” 세력을 추출하고 ‘의법치군’을 통한 군 기강을 확립하려는 시진핑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 시진핑 시기 군사 최고위 엘리트(上將) 인적 네트워크 분석

### 1) 분석대상

시진핑은 집권 후 2017년 3월 현재 다섯 차례 총 23명의 상장인사를 단행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민해방군에서 상장으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중장(中將) 진급 후 4년이 경과하거나 과거 대군구(전구) 정직(正職) 2년을 경과하면 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시진핑 시기 처음으로 상장으로 진급한 사례는 2012년 11월의 웨이펑허(魏鳳和)이다. 그리고 2013년 7월 우창더(吳昌德), 왕홍야오(王洪堯), 쑤스징(孫思敬), 류푸렌, 차이잉팅(蔡英挺), 쉬펀린(徐粉林) 등 6명, 그리고 2014년 7월, 치젠궈(戚建國), 왕자오청(王教成) 추이민(褚益民), 웨이량(魏亮) 등 4명, 2015년 7월에는 王冠中 등 총 10명,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주푸시(朱福熙), 이샤오광(乙曉光) 등을 상장으로 진급시켰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후진타오가 진급시킨 17명의 상장보다 시진핑 시기 새롭게 상장으로 승진한 숫자가 6명이 더 많다. 대체로 중국인민해방군 전체 상장 수가 38명 좌우로 유지되어 왔는데 현재 총 40명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진타오 시기 상장으로 승진한 군사엘리트 중 2~3명은 이미 현역에서 은퇴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총 4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상장들 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해 본다.

<표 1> 중국 현역 상장(上將) 현황

한글명	중문명	출생 년도	출신지	군사위 직책	현직	당 직책	진급일자
허치량	許其亮	1950	산둥	부주석	군사위부주석	정치국 위원	2007-07-06
우성리	吳勝利	1945	허베이	위원	해군 사령원	중앙위원	2007-07-06
창완찬	常萬全	1949	허난	위원	국방부 부장	중앙위원	2007-11-02
판창룡	範長龍	1947	랴오닝	부주석	군사위부주석	정치국 위원	2008-07-15
마샤오텐	馬曉天	1949	허난	위원	공군 사령원	중앙위원	2009-07-20
류위안	劉源	1951	후난		전인대 재경위 부주임	중앙위원	2009-07-20
팡펑후이	房峰輝	1951	산시	위원	연합참모부 참모장	중앙위원	2010-07-19
장양	張陽	1951	허베이	위원	정치공작부 주임	중앙위원	2010-07-19
자오커스	趙克石	1947	허베이	위원	후근보장부 부장	중앙위원	2010-07-19
장요우샤	張又俠	1950	산시	위원	장비발전부 부장	중앙위원	2011-07-23
쑤젠궈	孫建國	1952	허베이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위원	2011-07-23
자팅안	賈廷安	1952	허난		정치공작부 부주임	중앙위원	2011-07-23
두진차이	杜金才	1952	허베이		군위기율위 서기	중앙위원	2012-07-30
류야저우	劉亞洲	1952	안후이		국방대학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2-07-30
두형옌	杜恒岩	1951	랴오닝		정치공작부 부주임	중앙위원	2012-07-30
왕젠핑	王建平	1953	허베이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위원	2012-07-30
쉬야오위안	許耀元	1952	장쑤		군사과학원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2-07-30
웨이펑허	魏鳳和	1954	산둥	위원	로켓군 사령원	중앙위원	2012-11-23
우창더	吳昌德	1952	장시		정치공작부 부주임	중앙위원	2013-07-31
왕홍야오	王洪堯	1951	산둥		장비발전부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3-07-31
차이잉팅	蔡英挺	1954	푸젠		군사과학 원장	중앙위원	2013-07-31
쉬펀린	徐粉林	1953	장쑤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위원	2013-07-31
쑤쓰징	孫思敬	1951	산둥		무장경찰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3-07-31
류푸런	劉福連	1952	안후이		전략지원부대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3-07-31
치젠궈	戚建國	1952	산둥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위원	2014-07-11
웨이량	魏亮	1953	장쑤		남부전구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4-07-11
왕자오청	王教成	1952	안후이		남부전구 사령원	중앙위원	2014-07-11
추이민	褚益民	1953	장쑤		북부전구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4-07-11
왕관중	王冠中	1953	헤이룽장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위원	2015-07-31
인팡룽	殷方龍	1953	장쑤		중부전구 정치위원	중앙후보위원	2015-07-31
마오화	苗華	1955	장쑤		해군 정치위원	중앙기위 위원	2015-07-31
장스보	張仕波	1952	저장		국방대학 교장	중앙위원	2015-07-31
송푸쉬안	宋普選	1954	산둥		북부전구 사령원		2015-07-31
자오쥙치	趙宗岐	1955	헤이룽장		서부전구 사령원	중앙위원	2015-07-31
정웨이핑	鄭衛平	1955	싼시		동부전구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5-07-31
류위예진	劉粵軍	1954	산둥		동부전구 사령원	중앙위원	2015-07-31
리쥘청	李作成	1953	후난		육군 사령원		2015-07-31
왕닝	王寧	1955	산둥		무장경찰 사령원	중앙후보위원	2015-07-31
주푸시	朱福熙	1955	저장		서부전구 정치위원	중앙위원	2016-07-29
이샤오광	乙曉光	1958	장쑤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중앙후보위원	2016-07-29

<표 2> 5대전구(戰區) 사령원과 정치위원 현황

전구	전략방향	현직	이름	생년	본적	계급
북부	러시아 한반도	사령원	宋普選	1954	山東	상장
		정치위원	褚益民	1953	江蘇	상장
중부	수도방위 전략예비대	사령원	韓衛國	1956	河北	중장
		정치위원	殷方龍	1953	江蘇	상장
동부	대만 동해	사령원	劉粵軍	1954	山東	상장
		정치위원	鄭衛平	1955	山西	상장
남부	동남아 남해	사령원	王教成	1952	安徽	상장
		정치위원	魏亮	1953	江蘇	상장
서부	중앙아시아 인도	사령원	趙宗岐	1955	黑龍江	상장
		정치위원	朱福熙	1955	浙江	상장

## 2) 분석결과

분석대상인 현역 인민해방군 상장의 인적네트워크 분석하기 6가지 속성변수를 조사하였다. 각 인물들의 배경과 경력을 조사하여 서로 간 연결이 될 수 있는 변수를 고려하고 이 변수들을 공식적 네트워크 변수와 비공식적 네트워크 변수로 구분하였다. 먼저 공식적 네트워크 변수는 군 근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과 관련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당교경력, 주요활동지역, 주요근무부대 등 세 가지이다. 먼저 당교 경력은 연구생반, 성부급 연수생반, 단기연수반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요활동지역은 주로 경력을 쌓았던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같은 지역에 근무했다면 상호 연결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위직으로 갈수록 더 서로가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 공식적 네트워크 마지막 변수로 주요 활동부대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분석대상이 되는 40명의 상장이 경력과정에서 3년 이상 근무했던 부대를 군구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대부분은 최고위 군사엘리트가 되기 전까지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비슷한 나이에 같은 군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계급이 낮은 단계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나, 고위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다양한 회의나 교육 등을 통해 서로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 변수로는 출신대학, 출신지역, 세대 등을 변수로 삼았다. 먼저 출신대학은 비슷한 세대의 엘리트라면 서로가 연결될 개연성이 높을 것으로 봤고, 중국에서 ‘관시’를 형성하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지연’에 따라 연결망이 형성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변수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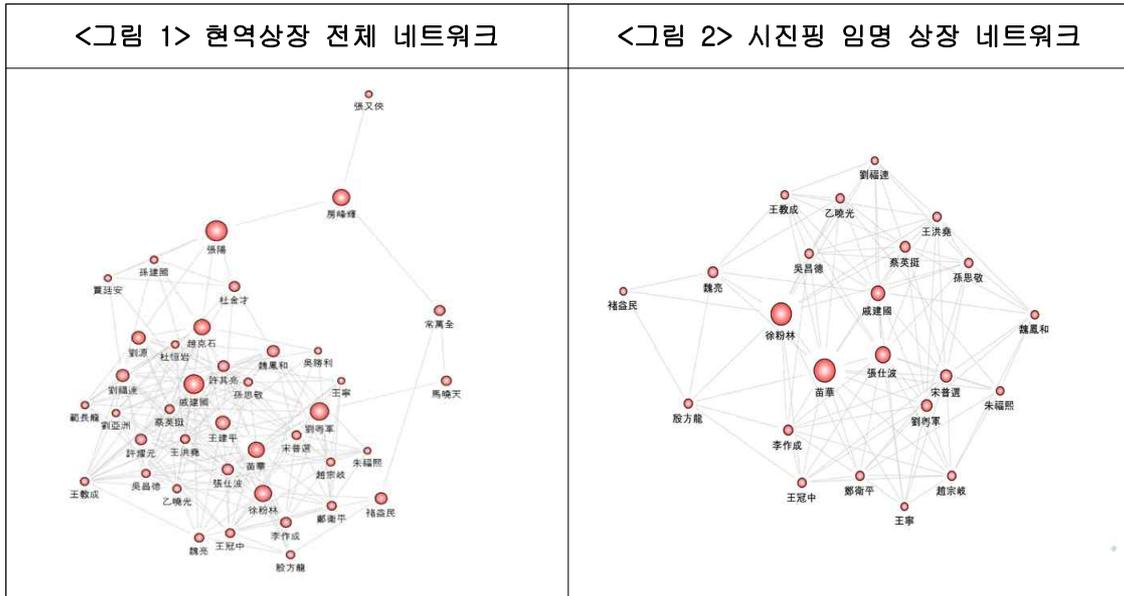
그러나 공식적 네트워크 변수 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변수 중 하나의 변수가 일치한다고 해서 현실상에 있어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세 이상의 변수가 일치할 경우 네트워크가 형성된다고 간주하여 각 엘리트간 링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즉 만일 두 엘리트가 ‘출신지’ 변수 외 다른 변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두 엘리트는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했으며, 어떤 변수이든 세 개 이상의 변수가 일치할 경우만 두 엘리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sup>2)</sup>

여섯 개의 변수를 처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한 결과 <그림 1>과 같은 현역 상장 40명의 전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었다. 이 네트워크의 경우 크게 두 컴포넌트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 가장 큰 엘리트가 현 군사위 위원이면서 정치공작부 주임인 장양(張陽) 상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개중심성은 사회연결망분석에서는 “한 노드(엘리트)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엘리트) 사이의 최다 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노드의 매개중심성이 높아진다”라고 정의된다(Brandes 2001). 즉 네트워크 상에 위치한 모든 엘리트들이 서로 간 연결될 수 있는 경로를 거쳐 갈 때 가장 많이 경유해야 하는 엘리트라 하고 할 수 있다. 장양 상장의 경우, 허베이 성 출신으로 광저우 군구에서 주로 근무한 바 있고 후진타오 시기에 상장으로 인명된 바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 변수간 관계에서 장양 상장이 가장 매개성이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림 2>는 후진타오 시기 진급한 상장을 제외하고 순전히 시진핑 집권 이후 상장이 된 이른바 ‘翦家軍’의 전체 네트워크이다. 이는 현역 전체 상장 네트워크와 구조상 비교될 만큼 응집도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총 23명의 상장 중 매개성이 가장 큰 엘리트는 마오화(苗華) 상장으로 2015년 7월 진급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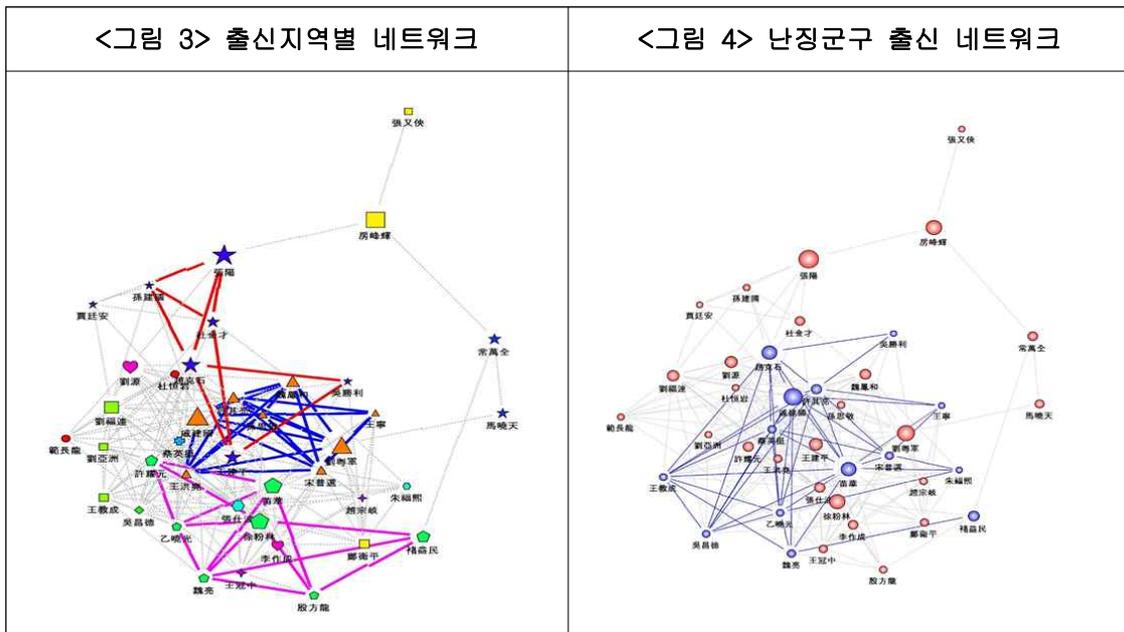
---

2) 사회연결망분석방법 중 상관계수를 측정 모델인 “Jaccard Coefficient”=
$$s_{rs} = \frac{a}{a+b+c}$$
 를 통해 추출하였다(Cox & Cox 1998).

장쑤성 출신으로 1955년생이다. 현재 중앙기율위 위원이며, 난징군구와 란저우 군구에서 군경력을 쌓은 바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엘리트는 쉬펀린(徐紛林) 현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으로 조사되었다. 그는 1953년생이다.



<그림 3>은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출신지역별 상장의 분포를 구분하여 각 지역출신 엘리트들의 위치 그리고 전체구조상의 배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그림이다. 40명 상장 중 세 지역 출신이 전체 절반이 넘는 53%를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상장을 배출한 지역은 산둥성으로 8명(20%)이었으며, 장쑤성 출신이 7명으로 18% 그리고 허베이성 출신이 6명으로 15%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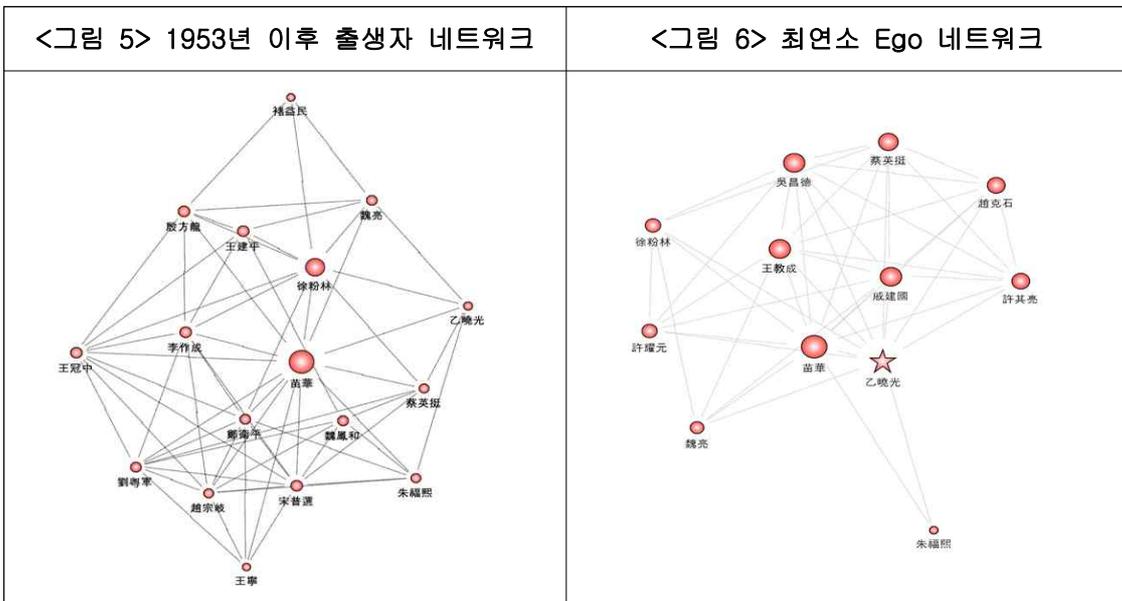
<그림 3>의 가장 아래 쪽에는 허베이성 출신 엘리트들이 포진해 있으며, 가장 위쪽은 장쑤성 그리고 정 가운데에는 산둥성 출신들이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쑤성 출신 상장과 허베이성 출신 상장 간에는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백을 산둥성 출신 엘리트들이 채워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조적 공백” 이론은 “서로 직접적으로는 연결되지 않는 두 행위자 사이의 공백”을 의미한다(Burt 1992). 따라서 이 공백을 연결해 주지 않으면 정보와 지식의 흐름이 단절되게 되는데, 이를 다른 행위가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전체 네트워크 구조의 단절을 피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출신지 네트워크 상에서 본다면 허베이성 출신과 장쑤성 출신 간 구조적 공백이 발생하고 산둥성 출신이 이를 매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연결성을 산둥성 출신이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그림 4>는 시진핑 시기 최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난징군구 출신을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 표현한 것인데, 전체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전체 네트워크를 대표한다고 할 정도로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진핑의 최고위 군사엘리트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태자군과 시진핑의 군사엘리트 네트워크 간 관계는 조사되지 않았지만 시진핑 시기 난징군구 출신들과 태자당 출신으로 구성된 “시가군”(翥家軍)을 군 요직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중앙정치무대에 등장하기 전에 근무했던 지역인 푸젠, 저장, 상하이 모두 난징군구 내에 있는 지역이다. 시진핑의 경력을 보면 지방에서 당, 정, 군 업무를 모두 챙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푸젠성에서는 2000-2002년 당 직책은 공산당 성위원회 부서기, 정부 직책은 푸젠성 성장, 군 직책으로는 난징군구 국방동원위원회 부주임, 푸젠성 국방동원위원회 주임, 푸젠성 대공포예비역사단 제1정치위원 등을 동시에 맡았다. 2003-2007년 저장성에서는 저장성위서기, 저장성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주임, 저장성 군구 당위 제1서기로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징군구 군엘리트와 빈번히 교류하고 상호 친밀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에는 자신의 군인맥이라고 할 수 있는 난징군구 군엘리트를 믿고 중용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소위 “난징파”로 분류되는 상장들은 현 장비발전부 부장 장요우샤(張又俠)와 후근보장부 부장 자오커스(趙克石)를 비롯해 연합참모부 부참모장인 치젠궈(戚建國), 북부전구 사령원 쑹푸쉬안(宋普選), 군사과학원장 차이잉팅(蔡英挺), 남부전구 정치위원인 웨이량(魏亮), 해군 정치위원 마오화(苗華), 무경부대 사령원 왕닝(王寧), 남부전구 사령원 왕자오청(王敦成), 북부전구 정치위원 추이민(褚益民), 서부전구 정치위원 주푸시(朱福熙), 연합참모부 부참모장 이샤오광(乙曉光) 공군상장 등 상장그룹이 포진해 있다. 그 밖에 중장(中將) 군사엘리트로는 정치공작부 부장보 천취(岑旭) 해군중장 등이 있다. 시진핑은 집권 후 후진타오 시기 군의 실질적인 실세였던 쉬차이허우의 본거지나 다름이 없던 선양군구에 측근인 왕자오청과 추이민 상장을 앉힘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쉬차이허우 추출과 사망에 따른 군구 내 불안정 요소를 안정화시키고 군사적으로는 한반도 위기상황에 대처함에 있어 선양군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2018년 제19차 당대회 이후에도 중국군의 최고위 엘리트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1982년 10월 제정된 「성급 지도 간부 배치에 관한 몇 가지 원칙 의견 통지」(关于省级领导班子配置的几点原则意见的通知)에 의하면 성급 정직(正職) 간부는 65세, 부급(副職) 간부의 경우 60세의 연령제한이 적용된다. 「大公報」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중국인민해방군에는 총 217명의 장군이 있는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大公報 2012.08.22.). 그 중 34명이 상장, 53명 중장, 130명 소장이었다. 군조직의 특성상 소장에서

상장으로 진급할 수 없다. 그러나 진급대기 연한을 줄어 들 수 있다. <표 1>에 제시된 출생년을 근거로 내년 2018년에 만 60세가 되는 상장만을 대상으로 적어도 부직(副職) 이상의 군직책을 맡을 군사엘리트만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경우, <그림 5>와 같다. 이들 중 가장 매개중심성이 높은 인물은 마오화였다. 2016년 시진핑이 새로 상장으로 진급시킨 주푸시 장군과 이사오광 장군은 각 1955년생과 1958년 생이었다. 특히 향후 중국인민해방군 차세대 리더가 될 1953년 이후 출생자 중 1955년생들을 주목해 볼 만 할 것이다. 마오화를 비롯해, 서부전구 사령원 자오쥬치(趙宗岐), 동부전구 정치위원 쩡웨이핑(鄭衛平), 그리고 무장경찰 사령원 왕닝(王寧) 그리고 주푸시 등이 그들이다. 한편 현재 중국에서 최연소 상장인 1958년생인 이사오광은 마오화, 웨이량, 왕자오청, 치젠궈, 자오스커, 차이잉팅, 쉬펀린 등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공식적, 비공식적 후원을 통해 시진핑 이후 시기 제6세대 군사 엘리트의 리더그룹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 V. 결론에 대신하여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2020년을 목표로 중국군의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인민해방군 ‘강한 군대’(強軍)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중국 꿈”이 곧 “강군 꿈”인 것이다. 강대국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중국은 군개혁을 통해 군사강대국의 길을 가려하고 있다. 시진핑은 군개혁과정에서 ‘혁명적인 변혁’, ‘전면적인 군개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변화하는 안보환경 맞춰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신군사기술을 활용한 이른바 “G2시대”의 중국군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로 읽힐 수도 있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군부패의 몸통’이라고 하는 쉬차이허우(徐才厚)에 대한 처분이 완료되고 동시에 주요 지역의 군지휘관들을 자신의 사람들로 교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시진핑은 2015년까지 21명의 상장을 새로 진급시켰고, 2016년 1월 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시진핑의 군개혁은 그 성격이 ‘전면성’을 띠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했고 심도 또한 깊었다. 향후 2020년까지 강대국

중국의 안보를 책임지고 강대국 중국의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군대를 바꾸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시진핑 시기 상장그룹 네트워크를 분석해 보면, 시진핑의 인사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시진핑 군인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성심’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활동해 왔던 지역인 푸젠과 상하이 등 과거 난징군구에 속해 있던 지역 출신의 군사엘리트들이 대거 군의 중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최고위 군사엘리트 내의 하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보다는 난징군구 출신이라는 단일 변수를 통해서 전체 상장그룹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인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다. 魏亮, 苗華, 戚建國, 乙曉光, 許其亮, 王教成, 宋普選, 蔡英挺, 朱福熙 등과 같은 군사엘리트이 시진핑의 인사배치로 인해 중앙과 5대전구 핵심 직책을 맡고 있다. 물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군권을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시진핑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보장책이다. “당에 의한 군통제(以黨領軍)”을 상장그룹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현하려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시진핑 자신이 진급시키고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자신이 제시한 군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종교배’는 건강한 결과를 생산하지 못한다.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과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실현하려는 일체화되고 집중화된 상장그룹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연결고리 중심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부정적 흐름을 차단하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매개중심성 높은 엘리트들이 존재해야 한다. 만일 네트워크 내 이를 갖추지 못한다면 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축되었던 네트워크가 곧 부패의 연결고리 곧 부패 네트워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고지도자의 군에 대한 통제강화가 곧 군의 부패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부패를 통제하고 예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사적 이익을 위해 작동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호견제와 감시의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두진차이(杜金才)가 맡고 있는 군사위원회 기율위의 감독기능 어떻게 전체 네트워크상에서 통제와 예방 기능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